

북한 종교인가족의 존재양식에 관한 고찰: 기독교를 중심으로

김 병 문*

- I. 서론
- II. 북한의 종교탄압과 기독교 공동체의 붕괴
- III. 종교인가족의 수난과 존재양식의 변화
- IV. 공인 종교조직 내 종교인가족의 실태
- V. '지하교회' 내 종교인가족의 존재양식
- VI.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주의 정권 등장 이후 종교인가족의 역사적 수난 배경과 신앙활동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내 종교인가족의 현재의 존재 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과거 종교인가족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운명을 맞았는가에 대한 삶의 궤적을 추적해 봄으로써 현재 북한종교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종교활동을 단순히 외화벌이 목적으로 보거나 혹은 종교의 자유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비판적 시각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종교가 당국의 동원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원 과정과 동원 대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분석을 통해 북한종교의 심층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종교인가족이 북한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종교 활동에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 북한종교의 핵심적 구성부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과거 종교인가족으로 불리는 신앙공동체는 한국전쟁 이후, 특히 1958년의 대대적 탄압

이후 와해되어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거나 가족·친척 내 소규모 가정예배 모임으로 생존을 유지하였다. 1972년 이후에는 북한당국에 의해 공인 종교조직으로 일부가 동원되었고, 1980년대에는 대외적 과시 목적 및 사회내적 필요성에 의해 공인 종교조직으로 동원되거나 개별 가정예배 모임의 활성화가 진행되었으며, 1995년 식량난 이후에는 이른바 '지하교회' 활동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북한의 종교인가족은 첫째, 개인적 혹은 가족·친척 중심의 모임으로 매우 느슨한 공동체로 존재하거나, 둘째, 국가에 의해 동원된 공인 종교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셋째, 지하종교의 공간에서 조직적 신앙 활동을 주도하는 등 세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 종교인가족은 현재 북한 종교의 핵심적 구성원이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북한종교, 북한기독교, 종교인가족, 가정예배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종교탄압, 지하교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I. 서론

북한에서 ‘종교인가족’은 한국전쟁 이전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과 그 가족을 일컫는 용어로 북한이 성분정책에 근거하여 사회적 차별의 대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특히 1958년 주민들의 가족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종교인가족을 포함한 성분분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른바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당 집중지도를 실시하여 “종교인과 그 가족”을 분류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북한당국은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대대적인 종교인 억압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주의 정권 등장 이후 종교인가족의 역사적 수난 배경과 신앙활동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내 종교인가족의 현재의 존재 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과거 종교인가족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운명을 맞았는가에 대한 삶의 궤적을 추적해 봄으로써 현재 북한종교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종교활동을 단순한 외화벌이 목적으로 보거나 혹은 종교의 자유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비판적 시각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종교가 당국의 동원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원 과정과 동원 대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분석을 통해 북한종교의 심층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를 기독교의 경험에 국한하는 이유는 다분히 자료의 부족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북한의 종교적 자유’ 프로젝트를 2004~2005년과 2006~2007년 두 차례 수행한 적이 있는데, 종교배경을 갖고 있는 80명의 탈북자를 심층 면접한 결과 북한에서 현재 불교나 천주교는 실제적인 활동이 거의 없고 천도교는 정치조직으로 존재하며 기독교가 유일하게 공식, 비공식 종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¹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북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과거 종교인가족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심

¹ 북한종교자유 실태에 관한 보고서는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USCIRF, November 2005), *Prison Without Bars* (USCIRF, March 2008)로 출판되었으며 국문번역본도 간행되었다. <<http://www.uscirf.gov/component/content/article/50-hearings-2005/1788-november-15-2005-press-conference-on-north-korea-report-qthank-you-father-kim-il-sungq.html>> (검색일: 2011.4.6.) <<http://www.uscirf.gov/news-room/press-releases/2180-april-15-2008-event-advisory-release-of-uscirf-report-on-north-korea.html>> (검색일: 2011.4.6.)

층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기독교 종교인가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북한종교 연구는 고태우(1992), 류성민(1992), 백중현(1998), 신법타(2000), 박완신(2001), 김병로(2002), 김홍수·류대영(2002) 등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존의 북한종교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종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특히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 종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이유와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종교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1972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선기독교도연맹이 1999년 2월 개칭, 이하 조그련)의 재등장이나 1988년에는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건립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종교가 부재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조그련 조직과 교회설립을 설명하려다보니 북한당국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 내지 ‘가짜’라는 비난만 제기할 뿐 진지한 탐구의 노력은 시도하지 않았다. 김홍수·류대영의 연구가 그나마 신평길과 신법타 및 방북종교인들의 기록을 근거로 북한에서 종교인들이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생존을 유지해온 역동적 과정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² 기존연구들은 대개 남한의 종교인이나 월남자 가족들의 간접적인 소식 인용에 근거하였으므로 북한 종교인 가족들이 실제로 어떤 운명에 직면했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문헌자료를 활용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북한의 종교적 자유’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탈북자 인터뷰 자료 가운데 종교인가족과 관련한 진술 내용을 활용하여 북한 내 종교활동 공간의 형성과 역사를 추적하였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존재양식’이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삶의 방식으로서 생존의 형태를 의미한다. 즉 북한의 과거 종교인가족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억압적 상황에 직면하여 반응하였던 여러 형태의 대응 방식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먼저 해방 후 북한의 종교억압 정책으로 인해 종교인가족의 초기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해체되고 변형되었는가를 살펴본다. 그 후 이 종교인가족들이 북한의 공인된 종교조직과 지하종교 조직에 어떻게 동원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신앙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심층 분석한다. 이러한 종교인가족의 심층 분석을 통해 북한종교의 형성과정과 현재적 성격을 평가한다.

² 김홍수·류대영,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서울: 다산글방, 2002).

II. 북한의 종교탄압과 기독교 공동체의 붕괴

1. 해방 후 북한의 종교탄압과 기독교 공동체의 위기

해방당시 북한에 형성되어 있던 기독교 교세는 3,000교회 30만 신도 혹은 2,000교회 20만 신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교회관련 자료들은 해방당시 북한의 기독교 교세를 3,000교회 30만 신자로 추산한다.³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해방이전에 현재의 황해남도 지역에 513개, 평안북도 지역에 452개, 평안남도에 439개, 황해북도 지역에 348개를 포함하여 총 3,022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자료는 1949년 북한지역에 대략 20만 명의 개신교인과 5만 3천여 명의 천주교인이 존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자료는 아마도 북한당국이 과거 기독교 인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자료일 것이다. 북한당국의 평가에 의하면 1950년 이전 북한 기독교는 교회수 약 2,000개, 신자 20만명, 목사 410명, 전도사 498명, 장로 2,142명 등이었다고 한다.⁴

위의 두 통계를 근거로 보면, 1945년 30만 기독교 인구가 1949년까지 20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기독교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는 종교인가족 가운데 북한당국의 반종교정책으로 인해 교회출석을 계속할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 특히 북한당국이 내린 주일소집령으로 인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북한당국은 기독교인과 그 가족을 탄압했던 방법으로 신자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요일에 직장을 나오도록 하거나 학생들을 학교로 소집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의 신앙 활동을 방해하였다. 일요일 소집에 응하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물리적, 심리적 고통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러한 탄압으로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교회출석을 포기하게 되었다. 평북 피현군과 철산군에 살았던 두 신앙인(북한이탈주민)은 1947년까지 교회를 다녔으나, 그 이후 이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⁵

³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 10년사』 (서울: 예수교장로회 종교교육부, 1956), p. 68. 조동진목사의 경우는 당시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북한지역에 목사 900명, 교회 2,200개, 신도수 325,000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조동진, “역사 전환기의 전방위 선교로서의 대북활동,” (2001한국기독교총일선교대회), p. 4.

⁴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년감 195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0), p. 365.

⁵ 북한이탈주민 CYJ (2004년 10월 13일, 서울), LSA (2004년 10월 23일, 서울) 증언.

둘째로, 직접적인 물리적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949년 청진에서 미사를 드리던 신부를 잡아다 총살하는 광경을 지켜 본 신자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할 경우 혹시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신자들끼리 서로 보기를 꺼려했다고 한다.⁶ 이처럼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압적인 살상이 자행됨으로써 물리적 위협과 두려움으로 인해 기독교인 가족의 신앙 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셋째로, 조선기독교도연맹의 활동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교회를 그만둔 신앙인들이 있었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46년에서 1947년에 걸쳐 북한의 교회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설득하거나 회유하여 연맹에 가입시켰다. 강양욱, 홍기주, 김응순, 박상순, 광희정, 김익두 목사 등 여러 성직자들이 연맹에 가입했으며, 1949년에 이르러 일반신도까지 각지의 면, 군, 도 연맹조직을 만들고 기독교도연맹 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 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교직자의 경우 노회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공산정권에 협력적이었던 조선기독교도연맹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연맹가입을 거부하면서 신앙활동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해방당시 30만 이었던 기독교인구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약 20만 명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학교육기관도 평양신학교와 성화신학교를 통합하여 그리스도신학교(기독교신학교)로 개편하고, 1,200명에 달했던 신학생을 120명 선으로 축소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조선중앙년감』(1950)에 기록되어 있는 20만 성도와 410명의 목사, 498명의 전도사, 2,142명의 장로 등의 평가가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억압이라는 위기를 맞아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북한 기독교 공동체는 1946년 토지개혁(3월)에 반대했고 3.1절 행사와 11.3 주일선거 거부 등으로 공산정권에 대항하였다. 또한 신의주 학생사건, 김일성 강양욱 저격사건(46.3), 함흥학생사건(46.3.13), 평북철산군 백량면 조민당 사건(46.9), 정주 오산학교 학생사건(47.5.23) 등 노골적인 반체제 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으며, 일부 목회자들은 ‘기독교사회민주당’ 등의 정당활동을 통해 공산정권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북한당국은 기독교인들을 북한정권에 저항하는 조직적 세력으로 간주하여 기독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했다.⁷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의 집단

⁶ 천주교인이었던 북한이탈주민 JHS 증언(2005년 2월 18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헤어진 한 지인을 1970년대에 만났는데, 어느 지역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⁷ 1946년 11월 13일 ‘미신타파돌격기간’(46.11.25-30)을 설정하고 반종교투쟁의 대중운동을 전개

적 종교활동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다.

2. 전쟁으로 인한 반기독교 의식 확대와 기독교 공동체의 붕괴

한국전쟁은 여러 면에서 북한 기독교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전쟁으로 극심한 물적, 인적 피해를 당한 결과 전쟁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고 미국과 연관되는 기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⁸ 미군의 무차별적 공습은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를 미국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에게 기독교가 미제의 앞잡이라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고 결과적으로 북한 정부에게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 기간 중에 행해진 기독교인들의 반공활동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의식이 커졌다. 연합군이 일시적으로 북진했을 때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위주로 많은 반공적 종교인이 연합군을 환영하거나 치안대, 유격대 등을 만들어 연합군의 활동을 지원하였다.⁹ 1950년 10월 25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아담스(Edward Adams), 힐(Harry Hill), 캠벨(Archibald Campbell)과 한국 목사 윤하영, 한경직, 김양선 등이 위문사절단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이들은 평양 서문밖교회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며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지역이었던 함흥지역 기독교인들도 미군 입성을 환영했고 미군군목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¹⁰ 한편 목사들이 ‘선무대원’으로 파견되어 북한지역에서 군중활동을 펴기도 했다.¹¹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 249-250. 북한은 한국전쟁 이전 전국의 기독교인 명단을 각 지역단위에서 교회별로 상세히 작성하기도 했다. 김일성 주석과 면담을 하기도 했던 조동진 목사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서 해제된 미국의 6.25전쟁 관련 노획문서 가운데 철산군의 교회 및 신자명단이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확보하였다. 평북 철산군 내 교회와 교인명단을 보면, 영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교회 내 봉사직책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⁸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인적 손실에 관해서는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pp. 219-242.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전쟁 중의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남한의 노근리사건(1999년 9월)으로 피해보상 논의가 제기되자 한국전쟁 시기 북한지역에서 190만명의 주민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평양방송』, 1999년 12월 21일; 『연합뉴스』 (북한소식), 1999년 12월 23일.

⁹ 박일석, 『종교와 사회』 (삼학사, 1980), pp. 78-79; 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 상권, p. 230. 이에 관해서는 황해도 선천에서 있었던 양민학살 사건을 다룬 황석영의 소설 『손님』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이 극적으로 형상화시켰다. 김홍수·류대영 공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서울: 다산글방, 2002), p. 86에서 재인용.

¹⁰ William Scott, “Canadians in Korea: Brief Historical Sketch of Canadian Mission Work in Korea” (1975), p. 185; 김홍수·류대영 공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p. 86에서 재인용.

1951년 1.4후퇴 이후 북한정부는 이처럼 연합군에 협조하거나 반공단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에 대해 처형하거나 투옥시켰다. 연합군 퇴각 후인 1951년 초 북한정부는 “반공단체 가담 처벌에 관한 결정”과 “군중심판에 관한 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전쟁 시기에 반공단체 가담자나 연합군에 협조한 사람을 색출하였다. 이때 반동분자로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종교인이었다고 한다.¹² 이들 가운데 상당수의 종교인들은 연합군과 함께 이미 월남한 후여서 처형을 피할 수 있었으나, 남은 종교지도자들은 인민재판에 의해 공개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¹³ 종교인 가족 중에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지만, 북한정권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연합군과 반공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도 발생했다.

또한 한국전쟁 중에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신자와 성직자들도 많았다. 당시 기독교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쟁 중에도 교회에 모여 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북한당국은 북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게 된 이유를 정치적 탄압 때문이 아니라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⁴ 실제로 1950년 11월 8일(일요일), 신의주 제1, 2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수백 명의 교인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몰사한 사례를 들 수 있다.¹⁵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기독교의 붕괴를 평가하려면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410명 목사, 498명 전도사, 2,142명의 장로가 전쟁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목사와 전도사 등 성직자들이 일차적인 처형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회사 연구에 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순교 또는 행방불명된 북한의 교직자 수는 장로과 260명, 감리과 50명이며, 성결교와

¹¹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p. 61; 김홍수·류대영 공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p. 86에서 재인용.

¹² 신평길, “로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북한』(1995.7), p. 56; 김홍수·류대영 공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p. 87에서 재인용.

¹³ Rhodes an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Vol. 2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64), pp. 43-44; 김홍수·류대영 공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p. 87에서 재인용.

¹⁴ 김일성, “통일전선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3.12.18), 『김일성저작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02-204.

¹⁵ 박일석, 「종교와 사회」, p. 77;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p. 179에서 재인용. 김일성 주석을 면담하기도 한 조동진 목사에 의하면 해방당시 3,000개 정도 되었던 북한의 교회건물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500여 곳 이상이 파괴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남아 있던 교회건물은 현재 용도가 변경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의 교파를 합하면 350명에 달한다고 한다.¹⁶ 교직자를 안수 받은 목사로 본다면 410명의 목사 가운데 절대 다수인 350명을 잃었다는 것이고 60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다른 기록에는 전쟁 후에 목회자가 약 20여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¹⁷ 그러나 불행히도 이 가운데 약 100명의 명단만 파악될 뿐 나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¹⁸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목사 외에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었던 전도사와 장로, 권사에 대한 행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위의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전쟁을 계기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한 탄압과 숙청이 진행되어 북한의 기독교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기독교 공동체는 거의 붕괴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 기독교는 극도로 침체되었다. 교회 건물에 대한 물리적 피해나 국민들 사이에서의 반기독교적 정서 확산도 큰 문제였지만, 전쟁 중 사망자와 월남자, 처형 등으로 인해 초래된 기독교 인구의 절대감소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이와 관련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전쟁 이후의 기독교 인구에 대해 다음과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기독교인 가운데 한국전쟁 중 월남자를 대략 5만 명으로 보고 있고, 전쟁 사망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5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면 전쟁 전의 20만 기독교 인구는 전쟁 후 10만 명 규모로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독교인 가족은 해방당시 30만 명에서 1949년까지 20만 명으로 감소했고 6.25전쟁 이후 10만 명으로 줄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캐나다 교회협의회가 1950년 북한의 개신교 교세를 1,400교회, 12만 명으로 파악한 것을 보면 이러한 추정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¹⁹

¹⁶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 10년사』 (서울: 예수교장로회 종교교육부, 1956), pp. 68-70.

¹⁷ 살아 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감리교 이풍은 목사는 북한에 남아서 협동농장에서 모범적으로 일을 하여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이영빈·김순환, 『통일과 기독교』, 서울: 고난함께, pp. 103-109; 김홍수·류대영 공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p. 97에서 재인용. 또 감리교목사 한동규, 장로교목사 이영태, 장로교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이순남전도사 등이 북한의 공화국 창건 20주년훈장, 국기훈장, 공로메달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일석, 『종교와 사회』, pp. 129-30.

¹⁸ 사와 마사히코, “해방이후 북한지역 기독교,”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p. 34.

¹⁹ 캐나다교회협의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보고,” 『신학사상』 (1989년 여름), p. 383;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 p. 173 재인용.

Ⅲ. 종교인가족의 수난과 존재양식의 변화

1. 종교인가족 추방과 반종교 교육

전쟁 이후 생존한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전쟁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탄압에 직면하였다. 1953년 12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기독교인들과 특히 기독교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지시하였다.²⁰ 1955년 4월,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1958년 3월 7일 “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를 통해 김일성은 간부사업에 대한 료해를 지시했으며, 1958년 5월 30일 당중앙위 상무위원회는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를 결정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추방사업을 단행했다. 1958년 8월부터는 ‘인텔리개조운동’이 전개되었으며, 1958년 11월 20일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와 1959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9년 2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으로 기독교 신앙인 가족은 교회와 혁명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에 신앙인들은 지하로 잠적하여 비공식적 신앙활동을 시작하며 조직적인 반정부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1957년 평북 용암포에서 기독교인 이만화를 중심으로 한 선거거부 투쟁이 발생한 사건이나, 황해도 재령에서 송목사가 200여 개소의 집조직 형태로 5천 명의 신자들을 지도하다가 협동화 시책 반대 이유로 적발되어 처형된 사건들이 이를 증명한다.²¹ 1958년 5월 30일 당중앙위 상무위원회는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발표하고, 1958년 12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중앙당집중지도를 실시하여 “종교인과 그 가족”을 분류했다. 이 때 파악된 종교인과 그 가족의 숫자는 약 10만 가구 4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²² 이를 토대로 북한당국은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대대적인 종교인 탄압을 실시했다.

북한은 1958년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조직적인 추방사업을 단행하였다. 전쟁 이후 산발적으로 대응하던 북한당국은 1958년 대대적인 성분조사 사업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와 추방 등 보다 강력한 탄압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1958년을 계기로 종교인가족은 체포되거나 시골·오지로 추방되는 경우, 그리고 북한당국의 감시를 피해 개별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경우

²⁰ 김일성, “통일전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02-206.

²¹ 신평길, “노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p. 6.

²² 이항구, “북한의 종교탄압과 신앙생활,” 『현실초점』 (1990년 여름), p. 111.

등 여러 형태로 갈라져 나갔다. 북한에 남아 있던 JCH 목사는 1958년에 체포되어 1968년까지 수감되었으며,²³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던 HSY의 가족은 1961년에 평양에서 함북 온성으로 추방되었다.²⁴ 6.25전쟁 이후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하고 있던 종교인들이 체포되거나 추방됨으로써 종교인 가족의 신앙활동은 크게 약화되었다.

과거 기독교인이 대부분 평안남북도, 황해도 등 서북지역에 있었으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추방이 함경북도 오지로 이루어지면서 흩어지게 되었다. 1940년 통계에 의하면 북한지역 개신교 인구의 약 90%, 교회 수의 약 82%, 그리고 교역자 수의 약 83%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²⁵ 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정책으로 인해 평안도와 황해도에 편중되었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나 함경북도 최북단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경도 지역의 통제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음은 이를 증명한다. 1988년 요덕수용소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70세 정도의 할머니와 아들·딸 등 일가족이 수감되어 있었으며, 1990년대 초 회령수용소 내 과거 종교인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지역에 당시 58세 가량의 천주교인 할머니는 오전 12시만 되면 하늘을 보며 성호를 긋는 행동을 하여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미친 할머니’로 불리기도 했다.²⁶

종교인에 대한 추방정책과 함께 1960년대에 북한당국이 집중적으로 전개한 반종교 교육으로 인해 종교인 가족은 신앙활동을 더 이상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²⁷ 1962년 8월 당 4기 4차 전원회의 결정,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964년 2월 당 4기 8차 전원회의 결정, “각계각층 근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965년 6월 당 정치국 결정,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사업을 실시할 데 대하여”, 1967년 5월 당 전원회의 결정,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등의 결정 시행과정을 계기로 지하에서 활동하던 일부 교인들까지도 적발되어 투

²³ 외할아버지 JCH에 관한 북한이탈주민 KHE의 증언 (2004년 12월 12일, 서울).

²⁴ 북한이탈주민 HSY의 증언 (2004년 11월 16일, 서울).

²⁵ 김홍수·류대영 공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서울: 다산글방, 2002), p. 66.

²⁶ 김병로, “북한내 인권실태,” 『생명과인권』, 통권 제29호 (2003년 가을), p. 15.

²⁷ 1959년에 출판된 반종교교육 서적인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정하철), 『인민의 아편』 (김희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로재선), 『미제는 남조선에서 종교를 침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로재선), 『종교도덕의 반동성』 (백원규) 등은 대표적인 반종교 교육의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최하신의 일가』 (1966)와 성황당 (1969) 등의 영화도 반종교 교육을 위해 제작·활용되었다.

옥되거나 추방되었다.

6.25전쟁을 계기로 붕괴한 기독교 공동체는 1958년 이후 종교인가족에 대한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처형과 체포 및 수감, 추방 등의 대대적인 시행으로 인해 산발적으로 저항하거나 부분적으로 집단적 신앙을 유지하던 활동마저 사라져 북한의 기독교 공동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종교인가족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과 숙청이 진행되면서 가족 내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들의 개인적 신앙행위까지 학교에 신고하는 등 매우 철저한 반종교정책과 사회적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인가족의 신앙 활동은 수면 아래로 철저히 감추어지거나 지극히 개인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

2. 종교인가족의 초기 신앙 활동

종교인가족들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신앙 활동의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북한당국의 종교탄압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그 틈새에서 생겨난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대대적인 종교탄압과 반종교 정책으로 종교인 가족과 연고자들까지 과도하게 피해를 주고 사회의 공포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불평불만이 고조되었다. 전 노동당 간부인 신평길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풀어주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했다고 한다.²⁸ 1968년 4월 당 정치국에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당의 군중노선을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고, 지난날 억울하게 반동분자, 불순분자로 낙인찍혔거나 월남자 가족 및 연고자들 가운데 현재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허물을 말소시켜주는 사업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이 때 60대 이상 ‘노인층 골수신자’로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하에서 종교행위를 계속하고 있던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가정예배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가정예배소는 평안북도 용천, 선천, 정주, 황해도 신천, 재령, 안악, 평안남도 남포, 용강, 평원 등 전쟁 전 기독교가 융성했던 지역에 200여 개가 허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평남 남포의 안신호, 만경대 칠골의 강선녀(김일성 외척), 강원도 원산의 도당위원장 김원봉의 모친 김씨, 함남 영흥의 장관급 간부 문만옥의 모친 황씨 중심의 모임 등이었다.²⁹ 특히 저명인사, 고위 간부급 인사 등의 부모를 위시한

²⁸ 신평길, “노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p. 58; 김홍수·류대영 공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p. 104에서 재인용.

가족들이 중심이 된 가정예배처소가 많은 수를 접했다. 가정예배를 허용하되 신자들은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종교선전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주일예배를 집에서 혼자 또는 2~3명이 모여 앉아 행하는 종교행위를 허용한 것이다.³⁰

이 시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활동에 대한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증언이 있다. 평안북도 피현군에서 신앙인 가족으로 생활하다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CYJ는 1967~72년 유일사상체계 확립 과정에서 사면을 받고 돌아온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다.³¹ 1967년 북한당국이 5.25교시를 내리고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는 유일사상체계 확립 과정에서 반동분자로 추방되었던 기독교인들이 사적연구를 통해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CYJ도 1970년 새로 꾸려놓은 사적관에 갔더니 12명의 장로들 가운데 자신의 부친이 혁명의 영웅으로 묘사져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김일성가족들의 항일혁명역사를 발굴하던 중, 당시 안수집사였던 자신의 부친이 김형직(김일성 부친)을 도와주었던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하루 아침에 ‘반동’에서 혁명가집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일사상체계확립 기간 동안에 복권되어 돌아온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가정예배’ 형태의 신앙활동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1960년대 후반에 국가적으로 ‘풀어주는 사업’과 김일성혁명역사 발굴과정에서 기독교가족의 가정예배소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 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차별과 박해가 느슨해졌던 것은 아니었다. 1967~72년 사이 유일사상체계 확립 작업을 추진하면서 봉건적 요소로 간주된 종교 활동은 여전히 억제되었고 종교인 가족은 국가적, 사회적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1968년에 200개의 가정예배소가 허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가족은 반기독교 교양사업을 통해 점차 기독교를 떠나도록 압박받았다. 그 결과 가정예배소는 1972년 남북대화의 무드가 조성되던 시기에 100여개 처소로 허용한 것을 예외로 한다면 40개소로 급감했고, 그 후 20여 개로 크게 줄어들어 들면서 명목상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³²

²⁹ 신평길, “노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p. 7.

³⁰ 위의 글.

³¹ 북한이탈주민 CYJ (2004년 10월 13일, 서울).

³² 신평길, “노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pp. 7-8.

3. 조선그리스도교연맹 활동과 종교인가족의 분화

종교인가족의 신앙활동은 1972년 이후 북한의 공인종교 조직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북한은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종교단체의 활동을 허용하였다. 당이론가 허종호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배제되었던 종교인들을 1970년대에 이르러 혁명의 보조역량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남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³³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가입 신자 수를 늘리고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지도급 인사들의 해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때 기독교 신자들의 가정예배소가 100여 개로 늘어났다. 그와 동시에 1972년 3년제 평양신학원 운영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가 체제 내에서 재생산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³⁴

조그련의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가정예배소 활동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즉 연맹이 가정예배소를 공인기구인 조그련 조직에 편성함으로써 조직 확대를 시도하였고 여기에 동원된 가정예배소와 그렇지 않은 가정예배 모임으로 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인가족과 조그련 간에 연맹 가입 문제를 두고 상당한 긴장과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경험적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며, 앞으로 구술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출생 60주년인 1972년에도 대사면이 있었는데, 이 때 오지로 추방되었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면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해방 전 한 목사의 딸은 자기 부친이 1956년 반종파 투쟁 때 종파로 몰려 온성군 창평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부모는 수용소에서 사망하고, 김일성의 60주년 기념 때 대사면을 받아 혼자 살아 나왔다고 한다.³⁵ 오지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종교인가족은 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앙을 유지해 나갔다고 하는데, 북한당국으로서도 이 종교인가족을 통제하기 위해 조그련 조직에 적극 편입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당국은 남북대화의 진전시 남북왕래 국면에 대비하여 군단위로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물에 대해 예비지정하는 준비조치도 취했다고 하는데, 활발해진 교회활

³³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국통일리론과 남조선혁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pp. 112-113. 양호민, “북한사회주의의 실상,” 『소련 동구 중국 북한』 pp. 210-211.에서 재인용.

³⁴ 그 후 신앙성서와 찬송가 (1983년), 구약성서 (1984년)를 발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1992년에는 신구약성경 합본을 『성경전서』로 출판하였다.

³⁵ 방금희(가명), “북한 지하교인, 남 몰래 신앙심 키우고 있다” 『Justice』 (2005년 10월호), p. 9.

동을 선전하기 위해 사면을 받고 돌아온 종교인가족들을 동원·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그런 활동의 재개로 이 시기 종교인가족의 신앙 활동은 ‘가정예배’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그런에 편입된 가정예배소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가정예배 모임은 자유롭게 신앙 활동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가정예배의 형태로 전환된 종교인가족의 초기 신앙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들과는 신앙문제로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못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야 조심스럽게 신앙 관련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그쳤다.³⁶ 미성년 자녀에게는 절대로 자신이 기독교 집안임을 비밀로 했으며 찬송가를 부를 때도 기독교 노래라는 사실은 감추고 옛날노래라며 들려주었다. 기도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밤중에 이불 속에서 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눈치 챈 자녀들은 이를 ‘주문외우는 미신’과 같은 행동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인 YJS은 원산의 형님댁을 1년에 2~3번 찾아가 찬송도 부르고 신앙을 나누었다고 한다.³⁷ JYH의 경우에는 종교인가족의 ‘가정예배’와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린다고 보다는 기독교적 설명을 해주는 정도거나 베껴놓은 주기도문을 읽고 그것에 따라 잘못된 것을 생활총화처럼 말하고 간구하는 형식이었다고 한다.³⁸ 전반적으로 볼 때 기독교 가족의 종교활동은 신앙공동체적 성격이 점차 약화되었고 기독교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전적으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통제 활동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반기독교적 정서와 배타라는 사회적 환경 자체가 자연스럽게 가정예배와 같은 신앙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종교인가족은 형식적인 종교공동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순수 신앙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체를 “구성원들이 공통의 가치관을 지니고 정서적 유대감과 상호이익의 교환 관계를 바탕으로 내적 응집력과 정체성을 지닌 집단적 삶의 형태”로 본다면, 북한의 종교인가족은 형식적으로는 종교공동체 또는 도덕공동체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앙공동체의 경우에는 기독교 교리를 핵심가치로 받아들이는 믿음공동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북한 종교인가족의 신앙활동은 기독교 교리와는 거의

³⁶ CHS, LHS, HSY, LSA, CYJ, KHE, LBN, JSH, JYH, JHS 등의 북한이탈주민은 기독교인 가족으로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서 종교인가족의 신앙 활동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증언하였다.

³⁷ 북한이탈주민 YJS 인터뷰 (2004년 11월 18일, 부천).

³⁸ 북한이탈주민 JYH의 증언 (2004년 11월 1일, 양평).

무관하다. 오히려 북한의 종교인 가족은 성분상 ‘종교인가족’이라는 동류의식을 갖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종교인 가족간에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종교인가족을 순수 ‘신앙공동체’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형식적 종교공동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인가족은 외적으로 보면 국가적, 사회적 차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미성년 시기에는 본인의 종교인가족 성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으나 성인이 되어 대학진학, 직장배치, 군입대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되어 좌절을 경험한다. 종교인가족이라는 성분 때문에 국가적 활동과 사회진출이 제한되고 북한의 일반주민보다 공민권상 많은 제약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내적으로는 종교인가족 간 결혼이나 종교인가족임을 기억하는 상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체성 유지를 시도한다. 종교인가족 간 결혼은 종교인가족과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차별의 결과이기도 하다. 종교인가족으로 성분이 분류된 집안과는 결혼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종교인가족은 자녀들의 결혼 상대자는 극히 제한되며 자녀결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로 가족배경을 잘 아는 기독교인 간에 자녀들의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인가족의 부모들은 신앙인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인 가족 내 결혼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한다. 또한 기독교인가족임을 확인하는 관행으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강조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종교인가족 성분이 알려진 경우, 도덕적으로 모범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정부당국 및 이웃사람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³⁹ 이러한 행위를 통해 종교인가족은 같은 운명을 지닌 집단이라는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신앙적 활동은 아니지만, 북한 내에서 종교인가족으로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고, 결혼 등의 이해관계와 도덕적 행위, 종교인가족 간 상부상조의 교환관계 형성을 통해 결속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³⁹ 북한이탈주민 HSY는 자신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어서 당국으로부터는 자주 감시를 받았지만 주변 이웃들로부터는 인격자라는 평판을 받으며 지냈으며, KHE의 경우도 자신의 모친이 종교인가족임이 알려져 있지만 착한 성품을 인정받아 이웃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HSY와 인터뷰 (2004년 11월 16일, 서울) 및 KHE와 인터뷰 (2004년 12월 12일, 서울).

IV. 공인 종교조직 내 종교인가족의 실태

1. 종교인가족의 신앙 활동 확대

1980년대 들어 북한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이 1988년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축한 것이다. 종교를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종교인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였던 북한에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그 배경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북한이 올림픽 공동 개최가 무산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였는데, 세계적 행사를 계기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회건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개방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통일운동에 적극적인 남한의 기독교를 통일전선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형식적인 교회건물을 세웠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1988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1980년대 초부터 축적된 대내외적 변화의 배경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과 한반도 상황변화가 끼친 영향이다. 1980년대부터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류를 추진했던 홍동근 목사는 북한이 1984년 12월 제3차 북과 해외기독자 간의 헬싱키모임에서 이미 북한교회의 건축 사실을 통고했고 1988년 9.9절 참석 시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참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⁴⁰ 북한과 교류하면서 홍동근 목사는 성경책도 가져다 주고 해방신학, 혁명신학, 민중신학, 정치신학, 여성해방신학 서적들을 전달해 주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교류과정에서 북한은 과거와 같은 숭미사대적인 교회가 아닌 민족주체적인 교회가 북한 땅에 설립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변화가 사회 내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1980년대에 가정예배소의 모임이 활성화되던 중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해 광복거리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광복거리 아파트에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가정예배소 모임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다보니 가까운 지역 내에 가정예배소 모임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를 한 곳으로 흡수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고 한다.⁴¹ 그 결과 현재의 광복거리 인근지역에 거

⁴⁰ 통일신학동지회 엮음, 『통일과 민족교회의 신학』 (서울: 한울, 1990), pp. 202-203.

⁴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의 설명 (2002년 12월 8일, 평양).

주하는 기독교인들은 흡수하기 위해 이 지역에 봉수교회를 건립했다는 것이다. 반면, 동평양 지역에서는 가정예배소 모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1980년대 후반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북한의 종교활동 재개가 대외관계 개선이나 외화벌이 등의 목적으로 북한당국에 의해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북한 내 점증하는 과거 종교인가족들의 신앙활동에 대처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내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촉진되었음을 말해준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 바로 1986년 김정일 명의로 하달된 전향적 종교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1986년 김정일 명의로 종교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내리고 그에 따라 종교정책을 새롭게 바꾸었다.⁴² 북한당국이 교회건축을 허용한 배경은 바로 이러한 김정일의 전향적인 종교정책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⁴³ 이러한 당국자의 설명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지 지속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사회 내부적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1980년 10월 6차당대회를 앞두고 기독교인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으며, 이 가운데 산골오지로 추방되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사면되어 돌아왔고, 북한에서 지상교회 교인이건 지하교회 교인이건 간에 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중심축을 이룬다”고 주장한다.⁴⁴ 이 가운데는 89세(2005년 당시)의 K목사 처럼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⁴⁵ 이들 종교인가족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운영하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정예배소’로 편입된 경우도 있고, 조그런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 형태로 가정예배 모임을 갖기도 했다. 봉수교회가 건축되기 전인 1988년 6월 15일 박경서 박사는 광복거리 인근의 만경대구역 성천가정예배소를 이미 방문했다. 그렇다면 광복거리 근처에 밀집되었던 가정예배소를 봉수교회로 흡수했다는 북한당국

⁴² 김정일,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p. 189; 박승덕, “기독교에 대하는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p. 81에서 재인용.

⁴³ 변화된 종교정책은 1992년 4월의 개정헌법에 반영되어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삭제하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교회건물을 짓고 공인된 교회나 가정예배소에서 신앙모임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1992년 출판된 『조선말대사전』에도 종교를 새롭게 정의했으며, 1998년 4월에 발행된 ‘세기와 더불어’의 학습사전에는 기독교와 선교사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26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세기와 더불어》 학습사전 1』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pp. 193-194.

⁴⁴ 북한이탈주민 KKO의 증언 (2005년 2월 23일, 서울).

⁴⁵ 위의 증언.

평가한다. 여기에 출석하는 신자들은 물론 당국에 의해 동원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 경험이 있거나 종교적 가족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⁴⁸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다년간 출석했던 D씨와 Y씨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성도들은 단순히 동원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라고 확신한다. 교회의 분위기가 결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교회분위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졌고 특히 칠골교회 황민우 목사의 설교는 처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⁴⁹ 칠골교회를 상당 기간 동안 출석한 Y씨는 보통 10시에 공식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때에는 예배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자유롭게 여러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그런데 외부손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오히려 긴장하고 평소보다 더 어색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성가대 찬양곡도 다양해졌고 황목사의 설교나 교회분위기가 점점 좋아졌다고 말한다. 요컨대, 점차적으로 종교인가족은 공인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가고 있다.

3. 가정예배소의 성장과 그 안의 종교인가족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 종교인가족의 중요한 신앙 활동의 공간이었던 가정예배소는 1980년대에 상당히 활성화되었다. 북한당국의 통제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많게는 100~200개, 적게는 20~40개 정도로 유지되던 가정예배소는 1980년대 들어 500여 곳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⁵⁰ 필자가 방북당시 면담한 조그런 관계자는 2002년 12월 현재 북한에 513여 곳의 가정예배처소가 있다고 설

⁴⁸ 사실, 김일성 자신이 종교인가족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이며 칠골교회의 건립 배경도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칠골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하나의 일화가 있다. 김일성이 봉수교회를 짓고 난 이후 그의 어머니(강반석)가 한동안 꿈에 늘 보이자 최덕신(1989년 사망)을 불러 그 이유를 물으며 어머니를 위해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당시 천도교 교령이었던 최덕신은 김일성 주석에게 김주석의 어머니가 교인인데 어머니를 위해 교회당이라도 하나 지어 바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김일성 주석은 다소 영뚱하게 들리는 최덕신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런 후 김일성은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를 당시 노인들의 고증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칠골교회를 건축했다고 한다. 김일성과의 대담, 재미교포 이운영 장로 증언 (통일부 자료, 1990.5).

⁴⁹ 칠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민우 목사는 언행에 있어 매우 신실한 목회자로 평가되고 있다. 칠골교회에 다년간 출석한 경험을 갖고 있는 D씨와 Y씨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신원을 밝힐 수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⁵⁰ 현재 가정예배소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1997년 3월 강영섭 위원장은 520여개로 보고하였다. 백중현,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서울: 국민일보사, 1998), pp. 32-34.

명했다. 평양과 남포, 개성에 각각 30개소, 평안남북도 각 60개소, 그 외의 도에 40개소씩 존재하고, 양강도와 자강도는 산간지역이어서 아직 가정예배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조그련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부인들 가운데 가정예배처소를 직접 방문한 경우는 많지 않다. 외부인이 북한의 가정예배소를 처음 방문한 시기는 1982년으로 1988년 봉수교회가 건립되기 전까지 4~5곳의 가정예배처소를 방문하였다.⁵¹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건립된 이후에는 가정예배소 방문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1990년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가정예배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북자들은 지금까지 평양시의 옥류, 낙랑, 순안, 형제산, 대동강 등 5~6곳의 가정예배소를 방문했다. 지방의 경우에는 봉수교회가 세워지기 전인 1987년 개성의 가정예배소를 방문한 것이 전부이다. 전국에 513개의 가정예배소가 존재한다는 북한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에는 가정예배소가 활발한 것 같지 않다. 과거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던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도 북한당국이 가정예배소를 공식적으로 방문토록 한 사례는 아직 없다.

가정예배소에 참석하는 신자들에 대해 종교와 전혀 관계가 없이 북한당국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한의 방북자들이 방문했던 10여 곳의 가정예배소 신자들을 분석한 결과 1~2명의 신앙 1세대를 포함하여 약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대동강구역 옥류가정예배소의 경우, 총 13명 가운데 3명은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9명의 신자가 참석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신자들은 짧게는 2~3년 전부터 길게는 20년 전인 1989년부터 출석한 사람도 있었다.⁵² 가정예배소에 나오게 된 배경은 각자 달랐지만, 참석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모두 과거 종교인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참석자들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이 없는 태도를 보였으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부모들로부터 들은 기독교 관련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누었다. 가정예배소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인 1세대인 강세영 장로(여성)는 1940년대에 평양의 서성교회에서 목회를 한 강병석 목사의 딸이었고, 낙랑가정예배소에도 왕혜숙 성도가 신앙인 1세대 신자로 참석하고 있었다.⁵³

⁵¹ 백중현,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p. 45.

⁵² 언제부터 가정예배소에 출석했느냐는 질문은 필자가 북한 가정예배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확인한 내용이다.

⁵³ 2002년 12월 11일 필자가 평양에서 만난 강세영 장로는 어릴적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부친 강병석 목사가 숭실중학교에서 성경공부를 가르쳤던 일, 조만식 장로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했다. 강세영 장로는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가정예배처소를 꾸리고 봉사사업을

북한당국은 가정예배소가 장로나 권사, 집사 등 평신도에 의해 운영된다고 주장한다.⁵⁴ 그러나 북한에 장기간 체류하며 칠골교회에 수년 동안 출석한 경험이 있는 한 관찰자에 의하면 가정예배소가 정기적인 모임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으며 필요시에만 모임을 갖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짐작컨대, 전쟁 이후 여러 형태로 생존하게 된 10만 명의 기독교 종교인 가족 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해 지역별로 교회 도는 가정예배소에 편입되어 조직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1만 2천 3백 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6천명이 12~13명 정도로 구성된 가정예배처소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6천명은 농촌지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런의 가정예배소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설명의 맥락에서 보면 조그런에 편입된 가정예배소는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존재하는 과거 기독교인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종교조직으로 볼 수 있다.

V. ‘지하교회’ 내 종교인가족의 존재양식

‘지하교회’는 일반적으로 공인 종교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북한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조직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외부세계에 알려진 지하교회는 과거 종교인가족으로 일컫는 느슨한 생활 ‘공동체’와는 달리 활성화된 신앙공동체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지하교회에 참여하는 종교인들은 비활성적 신앙공동체인 기존 종교인가족과는 구분되는 사람들로 식량난 이후 주로 탈북자들을 통해 외부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여 신앙을 유지하는 비교적 활성화된 새로운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종교인가족의 신앙 활동은 가족 내에서 혹은 가까운 친척들 간에 소규모 그룹으로 신앙인 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른바 ‘지하교회’는 10여 명, 혹은 20~30여 명의 구성원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연락하며 교제하는 비공식적 신앙조직이다.

북한의 이러한 지하교회 활동은 주로 북한에 기독교를 직접 전파하고자 하는 ‘선교회’를 통해 한국사회에 알려져 있다. 지하교회의 규모에 대한 평가는 선교회마다 각각 다르다. 이는 북한의 지하교회 네트워크를 순수한 기독교 활동으로 볼

하는 등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해 왔었다”고 회고한다. 민족21,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지요”』 (서울: 도서출판선인, 2006), p. 339.

⁵⁴ 조그런 관계자는 필자를 비롯하여 북한의 가정예배소 5~6곳 방문시 동일한 설명을 하였다.

것이냐, 아니면 비즈니스 활동까지를 포함하여 볼 것인가, 혹은 과거 종교인가족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이 선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남한의 선교단체들은 지하교회 신자의 규모를 파악할 때 과거 종교인가족의 숫자를 지하교회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이 경우 북한 지하교회 신자규모를 10만~30만 명까지로 넓게 보고 있다.⁵⁵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내에 권력층을 포함하여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높은 추정치를 보도하는가 하면, 북한선교연구자 조동진 목사는 한국전쟁 이후 20만~25만 명의 기독교인이 지금까지 생존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여 북한 기독교인가족의 규모를 75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⁵⁶

그러나 북한 지하교회의 규모를 순수 종교 활동으로 파악하는 단체는 지하기독교 활동인구를 1~2천명으로 매우 적게 평가하기도 한다.⁵⁷ 즉 비활성적인 과거 종교인가족을 지하교회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기독교 신앙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지하교회의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활동이 다소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로 간주하기에는 선교단체와 기독교 기관에 의해 외부로 알려진 것 이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지하교회 활동에 북한의 정보원들이 침투하여 정보기관에 이용당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⁵⁸ 뿐만 아니라 지하교회 활동이 탈북자들의 물질적인 도움이나 개인적 필요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⁵⁹ 이런 점에서 볼 때, 지하교회의 규모나 실체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알려

⁵⁵ ○○○ 선교회 대표 ○○○ 인터뷰 (2010.9.9).

⁵⁶ UPI는 국제선교단체인 순교자의소리(VOM)와 국제기독교관심(ICC)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설립하면서 북한 내에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권력층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UPI는 또 이들 지하교회 성도는 북한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이미 신앙을 갖고 있던 노년층과 중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어린 청소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시골지역까지 방문하는 조선족 보따리 장사꾼들이나 연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 의하면 외딴 집이나 산속, 논두렁아래 등에서 서너 명씩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민일보』, 2002년 3월 5일. 조동진, “역사적 전환기의 전방위 선교로서의 대북활동,” 『2001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강의 자료』, p. 6.

⁵⁷ ○○○ 선교회 국장 ○○○ 인터뷰 (2010.9.14).

⁵⁸ 북한정보기관은 정보원들을 다양한 부류의 탈북자로 가장하여 중국으로 내보내 탈북자 신앙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선교관련 정보를 모두 입수한다. 특히 황장엽씨의 망명 이후 1997년 보위사령부(1996년 조직)에 탈북자 침투반을 운영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선교정보를 조직적으로 입수하고 있다. 중국의 선교사들은 비밀스럽게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거의 대부분 북한 정보기관의 통제권 하에 들어가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은 이러한 루트를 역이용하여 지하교회 조직을 통해 정보도 얻고 외화벌이도 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놓여 있다.

⁵⁹ 남한이나 외부에서 지하교회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많이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탈북자들이

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활동에 대해서도 보도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탈북자 중심의 지하교회는 그 자체로 존재하기 쉽지 않다. 또 네트워크나 조직으로서 활동은 존재하지만 순수 종교활동보다는 비즈니스 관련 활동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종교활동은 과거 종교인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하교회가 북한 정보당국의 통제망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종교인 가족은 가족·친척간 네트워크로 북한당국으로부터 묵인되거나 은밀한 신앙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탈북자가 중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북한에 돌아가 자기 어머니에게 기독교를 전했는데, 그 어머니는 이미 아들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신자였음을 고백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가족의 사례도 있다.⁶⁰ 또 아버지가 과거 평양신학원을 다녔으며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탈북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례도 있다.⁶¹ 중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과거 종교인 가족에 대한 정보를 갖고 북한 내에서 전도를 위해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KYJ는 LYJ로부터 기독교를 전해 받았는데, 80세 정도였던 LYJ(여성)는 기독교 집안으로 가족들이 모두 처형당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부인하고 목숨을 유지한 사실을 평생 후회하면서 북한의 H지역에서 기독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또 북한이탈주민 KKO의 시어머니는 23세까지 평양에서 기독교를 믿었고 시어머니의 아버지는 기독교 장로였는데, KKO 가족은 모두 친척관계로 얽혀져 12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M지역에서는 70명 가량이 1년에 2회 정도 집회를 했다.⁶² 또 다른 H지역에도 36명의 지하교인이 있으며, 다른 H지역에서는 5명 정도가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렸다.⁶³ 또한 S지역에

외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얻는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 북한 내 권력자와 고위층들은 선교기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개종을 가장하거나 혹은 일시적 개종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실제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운 이후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심각한 반감을 갖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⁶⁰ 북한이탈주민 JYH는 자기 동생이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서 동생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JYH는 이것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JYH의 증언 (2004년 11월 1일, 양평).

⁶¹ 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p. 499.

⁶² 북한이탈주민 KKO의 증언 (2005년 2월 23일, 서울).

⁶³ 북한이탈주민 JSH 증언 (2005년 1월 24일, 서울).

134명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하교회 책임을 맡고 있는 C씨는 장로의 아들로 역시 과거 종교인가족이다. O지역과 C지역에서도 20명 가량의 신자들이 지하교회로 예배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들 역시 과거 종교인가족들이다.⁶⁴

북한에서 4대째 기독교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YJS은 북한에서 지하교회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⁶⁵ 자기와 같은 과거 신앙인 가족들은 가족들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간단한 모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여 예배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며 전도한 경험이 있는 SKI는 지하교회의 구성은 철저히 가족과 친척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한다.⁶⁶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에 개종자로 이루어진 지하교회 활동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과거 종교인가족과의 연계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증언들은 종교인가족으로 신앙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과거 종교인가족이 아닌 사람이 새로운 신자로 개종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지하교회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추론컨대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신앙인들 가운데 실제로 탈북자를 통해 새롭게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은 매우 제한적 규모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인들은 과거 종교인가족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과거 종교인가족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사례가 많다. 지하교회 활동이 과거 종교인가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탈북자가 많이 발생한 북한의 동북지역이 과거 기독교가족이 추방되어 정착한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곳은 냉전시기 가장 먼 오지였으나, 상황이 바뀌자 탈출하기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된다. 소극적·개별적 활동에 머물러 있던 과거 종교인가족이 탈북 개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지하 신앙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종교활동의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하교회 활동에서도 종교인가족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⁶⁴ 지난 20년간 대북사업을 하며 북한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재미교포 KJS의 설명.

⁶⁵ 북한이탈주민 YJS 인터뷰 (2004년 11월 18일, 부천)

⁶⁶ 북한이탈주민 SKI 인터뷰 (2005년 2월 25일, 대구).

V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과거 ‘종교인가족’으로 불리는 신앙공동체는 한국전쟁 이후, 특히 1958년의 대대적 탄압 이후 와해되어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거나 가족·친척 내 소규모 가정예배 모임으로 생존을 유지하였다. 1972년 이후에는 북한당국에 의해 공인 종교조직으로 일부가 동원되었고, 1980년대에는 대외적 과시 목적 및 사회내적 필요성에 의해 공인 종교조직으로 동원되거나 개별 가정예배 모임의 활성화가 진행되었으며, 1995년 식량난 이후에는 이른바 ‘지하교회’ 활동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북한의 종교인가족의 존재양식은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혹은 가족·친인척 중심의 모임으로 매우 느슨한 공동체로 존재하거나, 둘째, 국가에 의해 동원된 공인 종교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셋째, 지하종교의 공간에서 조직적 신앙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즉 북한의 과거 종교인가족은 북한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종교활동의 핵심적 구성원이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종교인가족의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추정 정도만 가능할 뿐이다. 6.25전쟁 이후 10만 명의 종교인가족이 생존했다고 보면 종교인가족 1세대 중 2010년까지 생존 가능한 인구는 20%에 불과하여 그 규모는 10만 명 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종교인가족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이들은 북한의 열악한 종교적 환경에서도 60년 가까이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인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당국의 차별과 사회적 냉대 및 비판 속에서도 꾸준히 신앙의 가계를 이어오고 있다. 외적으로는 종교인가족이라는 사회적 차별을 공감하는 집단정체성을 갖고 있고 내적으로는 결혼과 상징적 관습 유지, 상부상조 등 일상생활에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당국도 종교인가족의 신앙 활동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개인적 차원의 신앙생활로 간주하여 어느 정도 묵인 내지 용인해 주고 있다.

종교인 가족의 이러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 볼 때,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종교활동을 단순한 외화벌이 목적으로 보거나 혹은 종교의 자유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차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논리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당국의 이러한 대외적 과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북한당국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건축하고 종교활동을 전격적으로 허용한 배경에는 북한 내 점증하는 과거 종교인가족들의 신앙활동에 대처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내적 필요성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북한내 종교인가족들의

끈질긴 노력과 해외가족들의 희생적 지원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종교인가족은 당국에 의해 가정예배소와 공인 종교조직에 동원되어 종교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지하 종교활동을 통해서도 신앙활동의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종교의 성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거 종교인가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당국의 통제 하에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인 종교조직은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고 지하 종교활동은 정보네트워크에 포섭되어 있다. 그 속에서 종교인가족들은 2대, 3대로 내려오면서 부모들로부터 구전을 통해 신앙의 가족이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교리는 주של적 신앙이나 민속신앙과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라든가 ‘기도’라는 개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종교적 의례를 거의 가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 교리의 내용은 거의 없고 종교인가족이라는 의식과 몇 가지 도덕윤리 생활지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의 감시와 통제 하에, 때로는 통제의 눈을 피해 신앙인의 가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는 공인 종교조직이나 통제 바깥에 있는 개별 가정예배 모임 또는 지하 종교활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앙공동체로서의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간혹 한국사회에서 공인 종교 활동에 동원된 신앙인들을 향해 ‘꼭두각시’ 혹은 ‘가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북한당국에서 차별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과거 종교인가족이 남한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이들은 이중적 차별을 받는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종교인가족의 신앙내용이 없거나 활동이 부족하다고 하여 폄하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앙활동이란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수행의 연한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종교인가족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내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북한종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종교인가족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앞으로 기독교 외에 불교와 천주교, 천도교의 종교인가족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히는데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4월 13일 ■ 심사: 6월 3일 ■ 채택: 6월 13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8.
- _____. 『북한의 종교』. 서울: 통일연수원, 1992.
-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김홍수·류대영 공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서울: 다산글방, 2002.
- 류성민. 『북한종교연구 I, II』.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2.
- _____.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서울: 공보처, 1994.
- 박완신. 『북한종교와 선교통일론』. 서울: 지구문화사, 2001.
- 백중현.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서울: 국민일보, 1998.
- 북미주기독교학자회.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신법타. 『북한불교연구』. 서울: 민족사, 2000.
- 양한모. 『민족통일과 한국천주교회』. 서울: 일선기획, 1990.
- 윤동현. 『북한의 종교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1986.
- 정태혁. 『북한의 종교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1981.
- 정하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평양: 로동당출판사, 1959.
- 현대사회연구소 편. 『북한종교연구 1, 2』. 경기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1, 1992.
- 홍동근. 『비엔나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서울: 형성사, 1994.

2. 논문

- 법 성. “북한의 종교,” 『북한의 인식 4: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신평길. “노동당의 반종교정책 전개과정,” 『북한』. 1995년 7월.
- 윤이흠.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현상.” 『통일논총』 제16호, 1998.
- 조동진. “역사 전환기에 있어서의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평화통일과 북한선교 (I)』. 서울: 서부연회출판부, 1998.

A Study on the Modes of Existence of “Religious Families” in North Korea: *With a Focus on Christianity*

Philo Kim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n understanding of the modes in which the so-called “religious families” exist and operate within North Korea at present. To this e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how these families were formed and how their activities were carried out following the emergence of the socialist government will be analyzed in depth. This paper reexamine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view that religious activity in North Korea serves solely as a means for the state to attract foreign currency or to display conditions of religious freedom to the outsid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deny that th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of religion in North Korea occurs according to state mobilization, but rather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state mobilization of religion is actually carried out and who is involved in these efforts. Based on detailed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paper seeks to show that the “religious families” in North Korea, as major participants in both the formal and informal spheres of religious activity, are a key component of North Korea’s religion.

After the Korean War, and in particular the severe persecution of religion of 1958, religious communities of North Korea experienced a collapse in organization, having to subsist in the form of individual practice or small-scale gatherings among family and relatives. In the years following 1972, some of these “religious families” were mobilized by the state as officially recognized organizations. The 1980s saw a revitalization of state-sponsored religious activity and the separate family worship services in accordance with external publicity purposes as well as the domestic social needs. Afterwards, following the food crisis of 1995, religious participation became concentrated in the activity of so-called “underground churches.” As a result, “religious families” in North Korea today can be found existing in one of the following three modes: first, as very loosely formed communities centered on the individual or relations among family and relatives; second, as active members of state-sponsored religious organizations; or third, in pursuit of organized religious activity in the context of underground churches. From this perspectiv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ligious families” of North Korea are key players with a central role in the country’s religious sphere.

Key Words: North Korean religion, North Korean Christianity, Religious Families, Household Church, Christian Federation of North Korea, Religious Persecution, Underground Churches